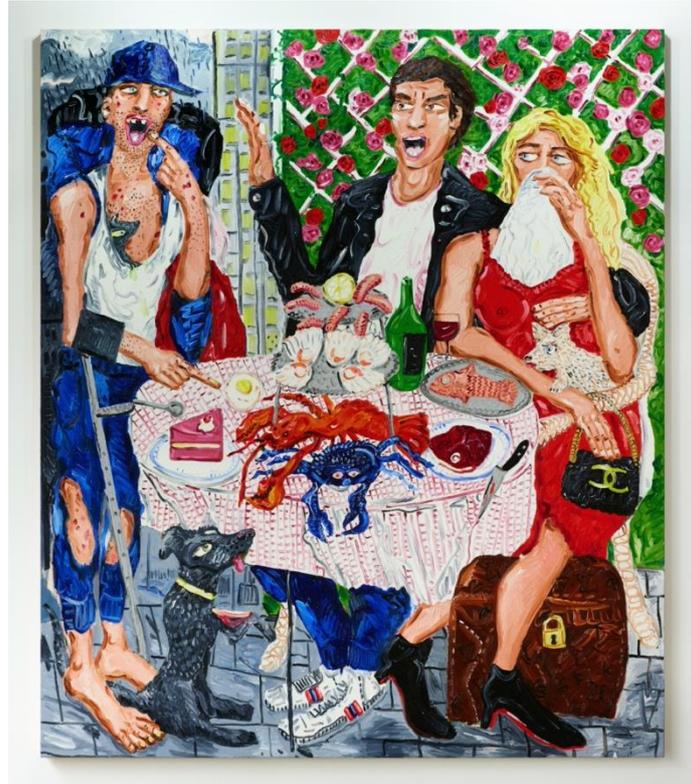


보도자료		데일 루이스 (Dale Lewis) 개인전 '스윗 앤 사워 (SWEET AND SOUR)'	
		전시 장소	초이앤초이 갤러리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길 42)
배포일	2023. 3. 10 (금)	전시 문의	E: info@choiandchoi.com T: +82 (0)70-7739-8808



Shells, 2022, Oil on canvas, 200 x 170 cm

전시 개요

전시 제목:	스윗 앤 사워 (SWEET AND SOUR)
전시 기간: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기자 간담회: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초이앤초이 갤러리 * 데일 루이스 작가 참석
오프닝 리셉션: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
전시 장소:	초이앤초이 갤러리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길 42)
전시 문의:	E: info@choiandchoi.com T: +82 (0)70-7739-8808



© CHOI&CHOI Gallery and the artist

작가 소개

데일 루이스는 향락에 빠진 현대 도시상을 그리며, 우리의 삶 속 분명 존재하지만 종종 방관과 부정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부패를 강조하고 현대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상반되는 이념 및 요소들을 조명한다. 개인적 서사와 직접 목격한 상황들을 회화로써 화폭에 펼치는 작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토대로 광란의 스테이지를 구축하고, 과장된 환상과 사회적 사실주의가 뒤섞인 우화적 내러티브를 만들어간다.

작가 약력

데일 루이스 (Dale Lewis, 영국, 1980 년 출생)는 2002 년 런던 길드홀에서 미술 학사 학위를, 2006 년 브라이튼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수료하였고 2015 년에 터프스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루이스는 런던 Block 336 갤러리에서 'No Place Like Home' (2021), 런던 Edel Assanti 갤러리에서 'The Great Day' (2020), LA Nino Mier 갤러리에서 'Free Range' (2019), 서울 초이앤초이 갤러리에서 'Hope Street' (2018) 등 다수의 개인전을 선보인 바 있으며, 멕시코 시티의 Museo de la Cancillería 에서 'The Day I Saw You' (2021), 린츠의 Schlossmuseum 에서 'Friends and Friends of Friends' (2020) 등 기관 전시를 가진 바 있다. 루이스는 2016 년 Jerwood Painting Fellowship 을 수상하였다. 루이스의 33 미터 길이의 대형 회화 The Great Day 는 2021 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Art Matters Museum 의 개관전에 포함되었고, 같은 해 완공된 런던 중심부 시네마 Picturehouse 에서 작가의 8 미터 높이의 벽화가 공개되었다. 루이스는 현재 런던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전시 소개

초이앤초이 갤러리는 영국 화가 데일 루이스의 개인전 '스윗 앤 사워(SWEET AND SOUR)'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16년 초이앤초이 갤러리의 서울 갤러리 개관전으로 열렸던 'Hope Street'에 이은 작가의 두 번째 국내 개인전이다. 향락에 빠진 현대 도시상을 그리는 루이스는 우리의 삶 속 분명 존재하지만 종종 방관과 부정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부패를 강조하고, 현대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상반되는 이념 및 요소들을 조명한다.

개인적 서사와 직접 목격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화폭을 펼치는 작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토대로 광란의 스테이지를 구축한다. Flat Iron (2023) 속 뉴욕 레스토랑의 성난 매니저는 사나운 광견으로 탈바꿈하고, Weeds (2023)에 등장하는 가난한 노숙자 청년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눈과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속옷 차림으로 도시를 떠도는 주인공은 먼 뒤에 서 있는 화려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자포자기한 듯 땅에 몸을 기댄다. 허영심이 가득한 체면치레와 가난에 찌든 모습의 대조는 루이스의 작업에 꾸준히 등장하는 모티브 중 하나로, 작품의 제목 '잡초' 또한 줄곧 간과되지만 우리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빈곤과 빈부격차,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꾸준한 노력을 암시한다.

작가는 사회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과장된 환상과 사회적 사실주의가 뒤섞인 우화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간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을 때 이러한 위기에 대한 소위 "해결책"은 부와 권력이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질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Shells (2022)와 Flat Iron 두 작품은 이러한 '우리과 그들' 사이의 이분법에 대한 고찰을 보여주며, 고급 레스토랑의 부유한 손님들의 소외층을 향한 공격적인 태도를 묘사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십자가 책형' 삼면화에서 영감을 받은 Flat Iron 속 노숙자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폭력은 방관하는 손님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지위적 차이를 강조한다. 야만성은 모든 이들 안에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짓값은 재물과 지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외층만이 묻게 된다.

풍요로운 유럽 산맥을 배경으로 성 노동자 두 여인을 그린 Cigar Bar (2022)와 Afternoon Tea (2023)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존재하는 야만성을 드러내며 우리가 존엄하다 여기는 가치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보여준다. 양복을 입은 부유한 고객은 여인들의 소변이 가득 담긴 마티니 잔을 기꺼이 마시려 한다. 호화로운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두 여인의 목에 걸린 십자가 펜던트는 종교적 암시를 통해 순수주의의 부조리를 부각하고, 순결한 척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보여준다. 결국 순결함과 더러움의 구분 그 자체 또한 허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분법의 허무함은 Smoking Kills(2023)에서 새롭게 다뤄진다. 작가가 미국 여행 중 목었던 마이애미 호텔의 근처에서 파티를 즐기던 손님이 흥기에 찢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그려진 이 작품은 중세 시대 흑사병을 묘사한 판화들, 왕과 왕비가 죽음을 암시하는 해골과 함께 그려지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이 그림은 영생을 보장받은 듯 자신은

CHOI&CHOI GALLERY | PRESS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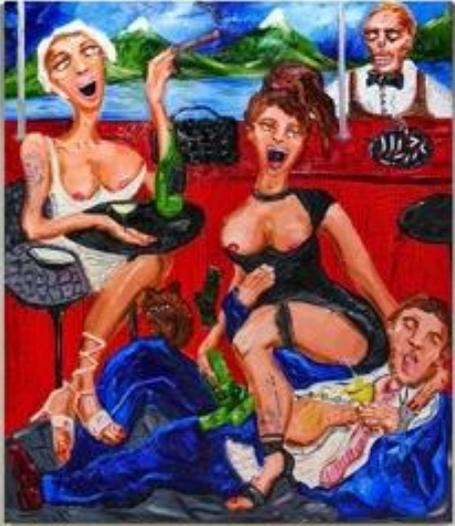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줄곧 믿는 인간의 안이한 믿음을 농간한다. 작품의 제목은 담뱃갑에 인쇄된 경고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장난으로, 클럽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돌발적인 폭행에 죽음을 맞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가리킨다. 시신 옆에 서 있는 붉은 VIP 벨벳 로프는 물리적인 장벽이자 은유적인 보호막으로 자신 안쪽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짓된 안심의 메시지를 전한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일련의 작품들은 Tea and Toast (2023)로 마무리된다. 최근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지낸 작가의 일화를 담은 이 두 패널 작품 속 다양한 등장인물들은 런던 병원의 다문화적 면모를 담는다. 작가는 의료 종사자들과 환자들 사이 비몽사몽한 모습으로 중앙에 누워있는 자신을 그리며 수술 후 마취 기운에 흐릿한 기억을 의식의 흐름 같은 그림으로 재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불안한 순간들을 외면하고자 하는 반면, 작가는 의도적으로 낯선 이들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공포를 대면하려 한다. 인간의 무능력함에 직면하는 이 순간, 작가는 상반된 세계가 서로 어우러짐을 느끼려 한다. 그것은 기쁨과 공포, 달콤함과 씹싸름함, 삶과 죽음의 세계이다.

주요 전시작

(Courtesy of CHOI&CHOI Gallery and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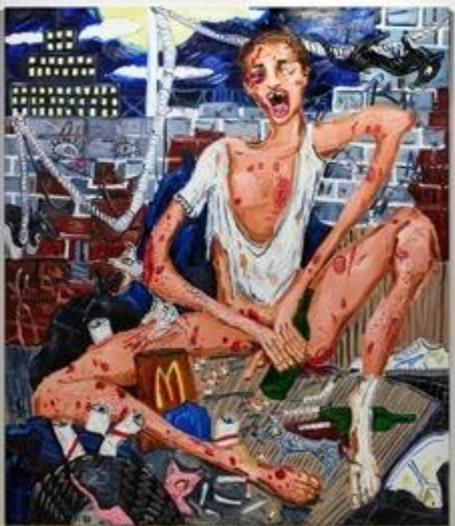
Image	Details
	<p>Afternoon Tea 2023 Oil on canvas 200 x 340 cm</p>
	<p>Flat Iron 2023 Oil on canvas 200 x 340 cm</p>
	<p>Tea and Toast 2023 Oil on canvas 200 x 340 cm</p>



Cigar Bar
2022
Oil on canvas
200 x 17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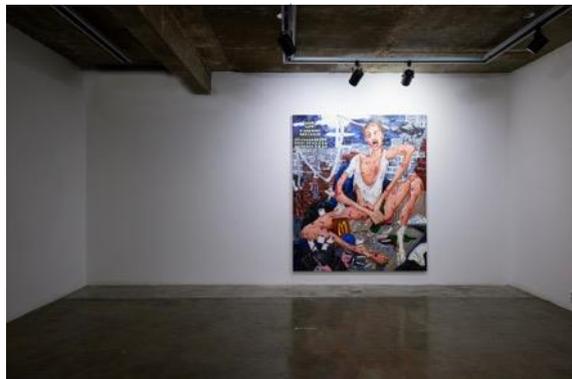
Smoking Kills
2023
Oil on canvas
200 x 170 cm



Weeds
2023
Oil on canvas
200 x 170 cm

전시 전경

(Courtesy of CHOI&CHOI Gallery and the artist)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는 함께 표기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이미지는 별도의 편집이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시와 관련된 모든 고화질 이미지는 [\[자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 소개

초이앤초이 갤러리는 2012년 독일 쾰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갤러리 설립 이후 최선희, 최진희 공동대표는 지역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도모하며 한국에서부터 런던, 파리, 베를린, 제네바에 이르는 광범위한 아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초이앤초이 갤러리는 쾰른 쥬트슈타트 지구에 자리잡은 2층의 전시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왔으며, 작가 일부는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갤러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해왔다. 2016년 강남 청담동에 서울지점을 오픈한 이후 한국 예술문화의 핵심지로 유서 깊은 종로 삼청동에 위치한 3층 공간으로 이전하였다.

개관 이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한국의 현대 미술을 국제 미술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맡아온 초이앤초이 갤러리는 전시와 아트페어를 통해 한국 현지 및 한국 디아스포라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모습을 해외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초이앤초이 갤러리는 서양의 소수 블루칩 작가들만이 컬렉션의 주류를 이루던 한국 미술 시장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머징하는 전도 유망한 작가들을 소개하며 작가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였다. 이러한 특색의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컬렉션을 만들어가는 컬렉팅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며 작가와 컬렉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패러다임 형성을 추진한다.

최선희 대표의 예술계에서의 시간은 20년이 넘는다. 한국에서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런던 크리스티 인스티튜션에서 미술사와 예술 경영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한 최선희 대표는 초이앤초이를 공동 설립하기 전 10년간 독립 큐레이터, 아트 저널리스트, 아트 컨설턴트로서 활동하였다. 갤러리 경영 외에도 중앙일보, 아트나우를 비롯 한국의 다양한 매체에 미술 관련 글을 기고하며 문화 예술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서도 활동해오고 있으며 저서로는 '런던 미술 수업 (2008, 아트 북스)을 발행한 바 있다.

한국에서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최진희 대표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시각디자인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알라누스 베르크하우스에서 조각과 회화를 공부하였다.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갤러리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며 특히 독일에 기반을 둔 예술가, 기관 및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정기적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CHOI&CHOI Gallery SEOUL



SEOUL

42 Palpan-gil
Jongno-gu, Seoul, 03054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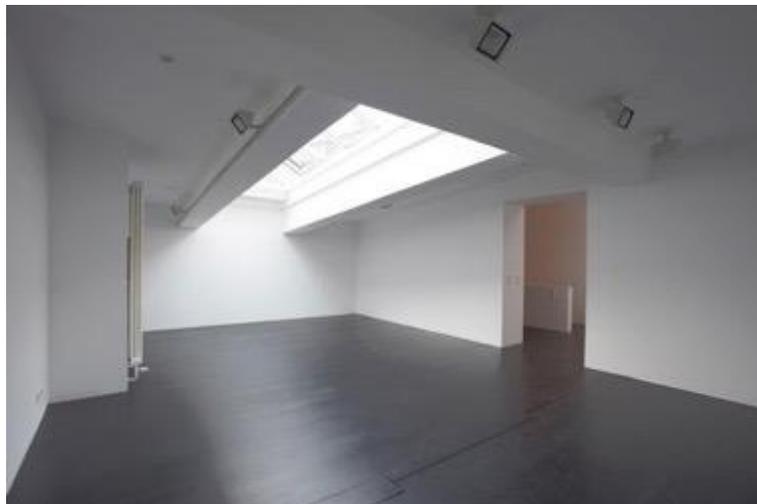
CONTACT INFO

CHOI&CHOI Gallery
Email: info@choiandchoi.com
Tel. +82 (0)70-7739-8808

OPENING HOURS

Tuesday to Saturday
10.00 - 18.00
and By Appointment

CHOI&CHOI Gallery COLOGNE



COLOGNE

Wormser Strasse 23
50677 Cologne
Germany

CONTACT INFO

CHOI&CHOI Gallery
Email: info@choiandchoi.com
Tel. +49 221 1699 2540

OPENING HOURS

By Appointment